

S. R. Ranganathan 에 關 하 여

司 空 哲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란간아단」은 1892年 印度의 Madras Shiyali에서 出生했다. 그 地名을 따서 Shiyali Ramarita Ranganathan 이라 이름지었다. 이곳에서 高等學校를 마치고 Madras의 基督教大學에 들어가 數學과 物理學을 專攻하여 24歲에 數學碩士學位를 받았고 1921년에 Madras의 Presidency College 數學 助教授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의 一生에 큰 變化가 오게되었으니 即 印度는 한사람의 優秀한 數學教授를 잃어버린 反面 世界的으로 著名한 圖書館人을 얻게된 것이다. 當時「란간아단」은 大學에서 資料의 不備와 教授法의 問題를 圖書館의 整備에 依한 教育改善을 生覺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單調로운 技術이 아닌 圖書館에 關한 諸 問題에 對한 學問的 方法과 解決을 可能케하는 새로운 科學의 成立을 꿈꾸었던 것이다.

1924年 Madras 大學 圖書館의 最初의 館長으로 就任한 後 英國에 留學하여 「런던」大學 圖書館學校에서 授業하고 各種의 圖書館을 調査한 結果 圖書館에서 取하고 있는 方法과 組織이 統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놀랐다. 그것은 單純히 技術面에서 뿐 아니라 管理, 人事 問題, 日常事務 等の 여러 部面에서였다. 여기에서 그는 圖書館에 關한 根本的인 理念을 세울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어 새로운 思索活動이 開始되었다. 그가 在英時 그를 直接 教授한바 있는 W. C. B. Sayers는 「란간아단」以前에도 印度에서 온 圖書館人은 있었으나 그는 새로운 資質을 所有하고 있었으며 圖書館學校의 課程은 그에게 있어 너무나 初步的인 것에 不過하였기때문에 圖書館學의 文獻을 調査하고 公共圖書館에서 實習하는 한편 學校 其他 文化施設을 살펴보는 賢明한 方法을 要請하였고 그 結果 獨立을 目標로 하고 있는 印度에 있어 圖書館은 重大한 役割을 하게 된다는 것을 確信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이 當時의 經驗을 土產로 하여 처음으로 著述한 것이 有名한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로서 1931년에 刊行한 것이지만 本書가 出版될때 까지 1925년에 歸國後 Madras 大學 圖書館의 組織化를 行함에 있어 모든 自己의 새로운 方法을 利用하고 물론 分類法도 實

地로 試圖하였고 또한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講義하게 됨으로서 上記 著書의 內容이 처음으로 學生들에게 紹介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는 圖書館이 해야 할 일이 다섯가지의 法則으로 간추려져 있다. 即 “① 圖書館 利用되기 爲하여 存在한다. ② 모든 讀者는 自己가 求하는 圖書를 읽을 權利를 갖는다. ③ 모든 圖書는 그것을 求하는 讀者에게 주어져야 한다. ④ 讀者와 館員과의 時間을 節約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圖書館은 끊임없이 發展하는 Organism이다.” 등으로 이 法則은 印度뿐만 아니라 모든 圖書館에 있어서 존수되어야 할 根本的인 原理를 提示하고 있는데 이것을 案出해 내는데 있어 「란간아단」은 人間의 思考過程, 思想의 追求와 創造같은 基礎的 考察을 行하였고, 또 人間이 營爲하는 生活의 諸 形態라든가 餘暇의 利用, 社會教育의 面에 까지 言及하고 있다.

1933년에 重要한 著作 Colon Classification의 初版이 나왔다. 이 分類法의 idea는 英國 留學時 考案된 것으로 歸國後 應用段階를 거쳐 在來의 分類法에 比하여 그 獨立性을 充分히 主張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갖고 出版을 보게 된 것이다. 出版過程을 좀더 詳細히 보면 1924~25年 原案을 作成하였고, 1926~32年 Madras 大學 圖書館 藏書 6萬卷을 分類하고 開架制의 採用과 參考奉仕面의 有効性을 檢證하였으며 1933年 最後의 改訂을 行하고 出版한 것이다. 1957年 第5版이 나올때 까지 圖書館이 生生하게 發展하는것 같이 分類法도 새롭게 發展되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自己의 分類法 改訂에 努力하였으니 即 1929~39년에는 教授와 批判의 研究가 加해졌고, 1937년에는 그 理論과 理原를 述한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의 初版을 刊行했고, 1938~44년에는 DC와 比較研究를 行하였고, 5個의 基本的 範疇와 phase, facet, focus 等の 明確한 定義를 내렸다. 1945~46년에는 UDC와 比較研究를 行했으며 그후에도 많은 研究結果를 誌上에 發表하였다.

1937년에 初版을 出版한 Prolegomena to Library Cl-

classification 은 1957年 英國圖書館協會에서 第2版을 내놓았다. 本書는 물론分類法과 分類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理解하는데 大端히 有益한 것이다. 처음에 基本的 準則, 方法, 手段 등이 列擧되어 있고 理論的인 說明은 第1部의 一般分類理論에서 始作된다. 여기서는 知識의 世界, class의 概念, 記號化의 要點 등이 詳細히 紹介되어 있다. 第2部는 知識의 分類를 取扱하였고 第3部에서는 知識의 分類를 分析하고, 分類用語, 記號化의 問題, 分類法의 構造와 展開를 說明하고 있다.

第4部는 다시 이것을 深屬分類(depth classification)의 立場에서 檢討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精緻한 思考法을 明白히 하고 있다. 分類法概念, 社會的 要因, 知識의 進展, Communication의 問題, 利用되는 手段에서 全體의 組織까지 廣範하게 記述하고 있다. 第5部는 知識의 分類에 關해서 demonstration을 行하기 爲하여 먼저 在來의 分類法과 比較하고 여기까지 말하여온 理論的 要點을 具體的으로 實例를 들면서 使用法을 解説하고 있다. 第6部는 圖書分類理論으로 知識의 分類와 相異點을 말하고 圖書成立의 方法과 分類의 方法을 關連지어 圖書番號, collection 番號, 請求記號에 이르고 있다. 第7部는 圖書分類의 歷史를 말하고 代表的인 諸分類法의 成立過程과 特徵과 長點을 簡潔하게 列記하고 물론分類法과의 比較는 容易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 第8部는 抽象分類理論에 있어 將來 分類理論의 方向을 示唆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抽象分類라는 것은 純粹 數學과 같은 것이어서 通常의 分類法이 應用數學이라는 物理學의 立場을 取하는데 反하여 쓰이는 말이다.

「란간아단」은 分類와 檢索이란 恒常 併行해서 生覺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점에서 參考가 되는 것은 Code for Classified Catalogue이다. 本書는 Classified Catalogue Code라 題하여 1934년에 初版이 刊行된 것이 1958年 第4版이 나왔을 때 上記와 같이 標題가 改訂된 것이다. 美國에서는 辭典體目錄이 큰 比重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分類目錄體의 說明을 特히 詳細하게 할 必要가 있는데 反하여 Ranganathan은 分類와 檢索手段을 結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不經濟, 不合理的이라 말하고 圖書의 分類는 書架上的 分類라는 生覺이 強하게 느꼈기때문에 分類理論과 檢索理論을 關連지어 重點을 둔 것이다. 特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chain indexing(連鎖索引法) 또는 chain procedure라 불리우는 處理法으로서 이 chain을 만든後 물론分類法에 있는 facet의 idea를 잘 나타내고 있는듯 하다. 以外 分類目錄에 關係되는 著書로는 물론分類法의 理論을 簡潔하게 說明한 Elements of Library Classification을 비롯해서 Classification and Communication, Depth Classification, Philosophy of Library Classification,

Classified Catalogue Code with Additional Ruler for Dictionary Catalogue Cod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著述은 分類目錄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參考奉仕, 圖書館管理, 行政, 社會教育 등 多方面에 걸쳐 있다. 其中 代表的인 것은 Education for Leisure, Reference Service and Bibliography, Organization of Libraries, Library Administration 및 印度의 特殊事情을 考慮하여 그의 全 idea를 結集한 Library Development Plan for India 등이 있다.

參考奉仕面에서 볼때 在來의 자칫하던 分類와 reference를 別個의 機能으로 生覺하기 쉬운 點에 修正을 加하고 있다. reference work를 遂行할 때 文獻에 關한 知識이 要求되는 것은 勿論이다. 또 그는 索引, 書誌, 抄錄, 翻譯 등의 作成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드러 在來의 것들이 갖는 缺點을 補正하고 將來의 文獻檢索活動의 經濟化와 機能化를 바라고 있다. 이와같은 일은 國際的인 理解와 協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고 充分한 檢討와 研究를 거쳐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面에 關하여는 主로 目錄上의 問題를 取扱하고 있는데 參考로 할 수 있는 것으로 1956년에 刊行한 Headings and Canons가 있다. 이 著書는 複雜한 考慮를 要求하는 團體著者를 어떻게 하던 더욱 明確하게 簡單히 記述할 수 있는 가에 關하여 意見을 提示하고 있는데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社會教育部門에서 그는 觀念的인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圖書라고 하는 文化的인 遺産을 通하여 具現化하려고 努力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란간아단」의 圖書館에 對한 情熱을 充分히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著述 및 後進養成에 傾注하는 한편 다른 面에서도 많은 貢獻을 하였으니 國內으로는 1925年 英國에서 歸國後 印度圖書館協會를 創設하여 印度圖書館 發展에 寄與하였고 Benares大學 圖書館長의 職責을 完遂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大學, 學術圖書館의 組織에 關하여 助言을 아낌없이 주어 왔다. 其中에서 特記할 일은 印度가 獨立한 直後 Madras를 비롯하여 各地方에서 實施하여야 할 圖書館憲章을 起草하여 그 實現化를 計劃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리하여 Sir Maurice Gwyer는 「란간아단」을 印度圖書館學의 父 W. Howard Phillips는 “印度의 Melvil Dewey 또는 James Duff Brown”이라 말하였고 오늘날 印度圖書館의 發展은 全的으로 그의 影響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 하겠다. 또한 國際적으로는 「유네스코」의 國際書誌委員, FID의 名譽會員, Vice president, 分類委員長 등의 役割을 하였고 南亞細亞 諸國의 科學關係 定期刊行物의 綜合目錄인 Union Catalogue of Learned Peri-

(11面에 繼續)

(이 所藏事項 및 綜合目錄에 關해서는 國會圖書館報 第2卷第5號(1965年5月號) p 10~17, 18~20을 參考하기 바란다.)

他館에 問疑할 境遇 留意해 들것은, 調査를 위한 要目(書名, 編著名, 出版事項等)이 반드시 正確하게 記錄되었다고 믿을수 없기 때문에 必要에 따라서는 刊行物目錄 等を 併用하여 그 要目を 確認한後 檢索을 해야 할 境遇가 있기때문이다. 特히 論文集, 雜誌論文等은 收載卷號가 明確히 못하며 또한 誤記될 境遇도 적지 않으므로 論文索引, 主題文獻目錄에 依據 確認한後에 所藏狀況을 確認해야 할 제도 있음을 留意해야 한다.

b) 主題文獻의 探索

이 主題文獻의 探索은 Reference 業務中 가장 中心의 位置를 차지하는 作業이라 하겠고, 그 核心은 二次文獻 및 其他의 參考道具(Reference Tools)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는데 있는 것이다. 即 (1) 分野別主題文獻目錄, 雜誌記事, 其他 論文索引, 文獻抄錄等の 主題에 關한 二次文獻의 適切한 使用에 依하여 探索이 可能하다. (2) 必要에 따라 包括的 또는 主題別刊行物目錄(特히 索引)을 調査하고, (3) 다시 參考圖書를 調査하여 參照文獻으로 表示되어 있는 것은 모두 二次文獻의 하나로서 活用한다. (4) 이 外에 Reference Card, Information File, 主題別藏書카드(分類카드, 主題카드)等 參考室(資料室)에서 作成한 檢索카드로 探索하는것도 併用하여 調査를 하되 그 網, 目を 細分하여 徹底를 期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過程을 經由하여 獲得한 文獻上, 또는 概念上의 暗示(Hint)를 可能한 限 一次文獻에서 確認함에 따라 必要한 文獻을 最終적으로 選出할 수 있게 된다.

註: 一次文獻: 論文, 報告書, 講演集, 特許明細書, 議事錄, 文書, 地圖等 情報의 生産者自身이 記錄한 資料를 一次文獻이라 한다.

二次文獻: 文獻目錄, 抄錄, 索引과 같이 一次文獻의 情報가 어떠한 方針과 體制에 依하여 書誌로서 編成된것을 二次文獻이라고 한다.

5. 參考質問의 處理와 應答要領

參考質問을 받을 때 依賴者(所屬, 姓名, 擔當分野, 專攻分野), 依賴事項, 目的, 回答의 範圍, 回答方法等에 對하여 正確하게 記入하도록 할것은 勿論이며, 處理에 있어서 特히 留意할 事項과 應答의 要領을 明示하던 다음과 같다.

a) 確實한 問題點의 把握에 努力한다.

參考質問을 依賴하는 사람中 或者는 問題點을 具體적으로 記入을 하나 大概是 包括的 主題分野만을 表示

하므로 問題의 具體的 內容을 明確히 把握하기가 難處하다. 이럴 境遇에는 適切한 方法으로서 問題點을 明確히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前述한바와 같이 要는 質問의 問題點을 確實히 把握하는것이 첫째의 要件이라 하겠다.

b) 問題의 背景과 視點을 確實히 한다.

專門分野의 細部的인 問題에 對한 Reference 의 依賴를 接受하였을 때 問題의 背景을 確實하게 把握키 困難할 때가 있다. 이런 境遇에는 依賴者로 하여금 問題에 對한 背景의 概括的說明을 即 補充說明을 하도록 하여 視點을 豊富히 넓힌後 二次文獻을 活用 또는 一次文獻을 調査하는 等해서 開始를 하는것이 有効할것이다. 그리고 自己의 判斷範圍를 超越하는 問題는 特히 適當한 視點부터 問題를 取扱하도록 함이 좋은것이다.

c) 專門機關의 知識의 活用

特殊한 專門主題로 分析하기 困難한 問題가 있을 境遇에는 組織內(도서관이 屬해 있는 自體機關의 뜻)에 關係專門家가 있으면 그들의 協助를 얻어 問題에 對한 敎示를 받도록 하면 大端히 有益할 것이며 또한 問題解決의 어떠한 Hint를 얻는 일이 많다.

6. 結 論

이 글의 題目을 專門圖書館에 있어서의 Reference Service 라고 하였으나 以上の 內容으로 보아 비단 專門도서관에만 該當되는 內容만은 아니다.

어떤 圖書館을 莫論하고 Reference 機能을 안가진 도서관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認識을 가지고 Reference Service에 臨해야 될줄 안다. 特히 Reference Service는 어떤 도서관이든 將次 圖書館活動의 強力한 推進力이 됨은 조금도 疑心할餘地가 없는 事實이다. 따라서 이 分野에 對하여 좀더 깊은 研究를 아끼지 말아 주기 바라며 끝으로 文章이 잘 整理되지 못하여 或 理解하기 困難하다라도 寬容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3面에서 繼續)

odical Publication in South Asia를 作成하였다.

上述한 바와같이 「란간야단」은 여러 部分에 關係하고 있는데 이들의 根本은 最初로 著述한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에 基礎한 것을 알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西歐의인 圖書館教育은 特定國의 影響하에 出發하였기 때문에 「란간야단」에 關하여는 等閑視되어 왔으나 그의 모든 思想은 徹底히 理解하고 發展시켜 우리로서 알맞은 새로운 圖書館像을 具體化해야 할 것이다.